



지속적 연구개발, 방산부재업 분야 1위 고수

포장산업 중추 기업으로 발전 기대

한국특수포장은 1973년에 설립되어 방산부재업체로 꾸준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한국특수포장은 현재 본사를 강남에 두고 공장은 경기도 안양에 1,000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적극적인 영업력과 원활한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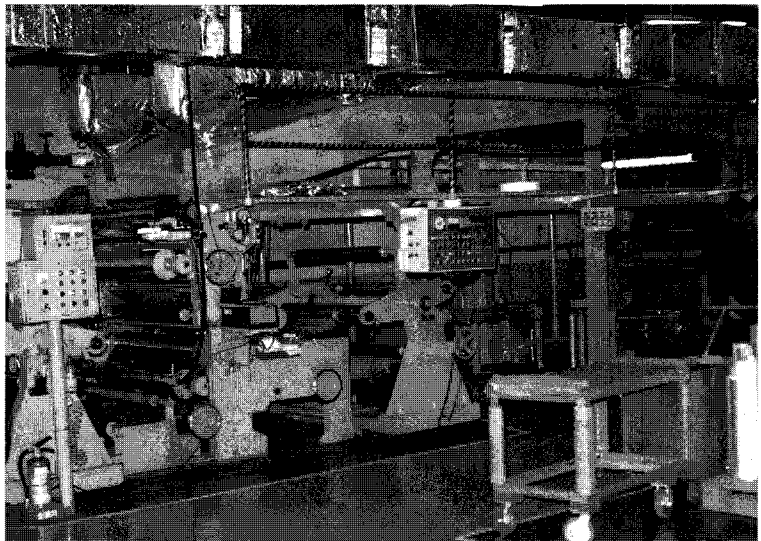
초창기 연포장업으로 시작한 한국특수포장은 동업종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좀더 차별화된 분야로 눈을 돌려 군수물품 쪽으로 사업을 전환시켜 나갔다.

특수전문제품의 생산에 나선 한국특수포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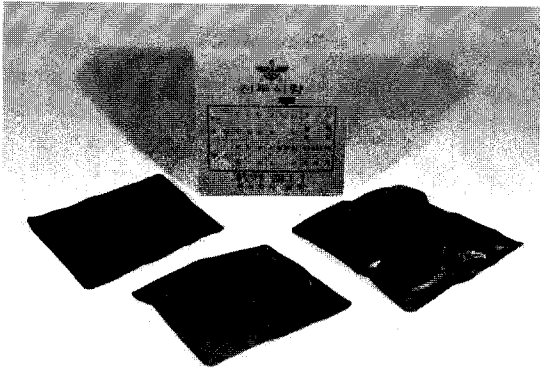
철저한 품질관리와 연구개발로 동업계에서 1위로 손꼽을만큼 제품의 개발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1976년 한국특수포장은 방산 부재업체로 지정이 되면서 동종업체와 차별화에 나선다. 총이나 포탄 등의 방습 및 방청보호제를 국방개발연구원과 함께 자체 개발을 이루어냈다. 이로인해 그동안 일본에서 수입해 오던 재료들을 전량 국산화하게 된 것이다. 또 1979년 특수포장재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였으며 1982년에는 레토르트 파우치를 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하기도 했다.

한국특수포장이 처음부터 자체개발을 위한 노



▶ 실내청결유지의 방편으로 에어컨을 필요부분에만 연결시켜 사용하고 있다.



▶ 방산부재 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특수포장의 전투식량포장

력을 기울였던 것은 아니다.

초기엔 일본의 후지모리사와의 기술제휴를 위한 협상에 들어 갔었지만 기술제휴의 조건으로 후지모리사는 생산기계 전품을 자회사의 것으로 쓰기를 원했는데 비용상의 문제가 야기되면서 결국은 기술제휴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우리 기술도 정말 좋습니다. 그때 주문제작했던 기계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니 정말 잘 만들었죠?”라며 당사 조흥목 부장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우리 기술력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뻐했다고 전했다.

레토르트 파우치 개발에 이어 1986년에는 방수지제 미국 특허를 취득했고 1987년에는 군량미 특수포장재를 개발하는 등 한국특수포장은 방산부재 관련 제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과 연구로 타업체의 추종을 불허할만큼 독보적인 자리에 올라서었다.

현재 한국특수포장은 몇 가지 신제품 개발을 진행 중인데 그 중 하나가 김치 포장재에 대한 연구이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포장김치의 경우 안을 볼수 없는 불투명 포장재를 이용하고 있다.



▶ 주생산품목인 레토르트파우치

그래서 김치의 숙성정도를 소비자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런 점을 간파한 한국특수포장은 김치포장재에 색지시계를 부착시키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김치의 발효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색지시계의 색깔을 통해 소비자가 판단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발의 목적이다.

투습도시험기, 산소투과기 등의 설비들을 갖추어 두고 더욱 연구에 힘을 쏟고 있는 한국특수포장은 군관련 기술과 제품 개발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철저한 품질관리를 이루며 또 하나의 동종업계 내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실내작업환경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작업장 출입구에 에어샤워와 에어커튼을 설치했으며 작업장 내에서는 모자와 실내화 착용이 의무이다.

인쇄공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잉크조절기를 8도인쇄기에 부착하여 인쇄의 균일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카메라의 설치로 순간의 이미지를 포착하여 재확인 작업도 병행하고 있었다.

또한 인쇄기와 드라이라미네이터를 2층에 위치시켜 실내 습도 조절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하



고 있으며 에어컨도 불필요한 작동을 멈추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연결해 작동시키는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대과정상에서의 파우더 처리 장치에는 집진기를 설치하여 파우더 가루가 작업장 실내에 날리지 않도록 주의의 기울이고 있다.

지금은 이런 시설들이 일반화됐지만 한국특수포장의 경우 타업체보다 이런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한 발 먼저 시작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한편, 한국특수포장은 생산품의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밀한 검사 밖에는 없다는 생각으로 검사장비를 들이지 않고 검수원들로 하여금 제품을 검수하도록 하고 있다.

사람의 판단에 의한 검수이다 보니 기준치 이상의 생산품도 버려지는 경우가 있어 원가가 상승이 되고는 있지만 제품의 완성도에서 그만큼 한국특수포장의 자신감을 더해주고 있다.

한국특수포장은 이런 철저한 품질관리 노력과 함께 1999년 7월에 6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ISO 9001을 획득하여 이제는 한층 더 까다로워진 생산방식과 관리시스템 하에서 생산 규격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IMF 이후 오히려 해외 수출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한국특수포장은 ISO 9001 규격에 따른 품질매뉴얼 제작으로 인해 공정도와 절차상의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작년에 이룩한 수출고 150만불을 올해는 200만불까지 올리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특수포장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직률이 많은 동업계에 비해 장기근속자가 많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특수포장의 사원복지제도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 바탕에는 조충묵 사장의 직원

을 배려하고 위해주는 마음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1996년에 사재출연을 한 1억 5천만원의 기금을 운용, 직원자녀들에 대해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택자금 대출도 해 주고 있다. 사내 기숙사를 운영하며 그에 따른 편의 시설을 갖춰 직원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매년 봄과 가을에는 전체 직원단합대회를 가져 직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는데 올해도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직원연수를 진행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한국특수포장은 무재해운동을 특별히 거창하게 하지 않는다. 재해운동에 소홀해서가 아니라 시설투자나 시설관리에 중점을 두다보니 자연스럽게 근로환경에서 재해대처에 대한 모습들이 녹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97년과 98년에 이어 올해까지 재해발생률 0%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조홍묵 부장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한 설비투자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제품개발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음과 동시에 근로자에 대한 배려도 놓치지 않고 있는 한국특수포장은 설비 측면에서의 개선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어 직원들 스스로가 회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근무하도록 조성하고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산설비를 개선하고 근로환경의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국특수포장의 임직원들의 모습에서 거창한 근로환경 개선구호보다는 실천하는 행동속에서 서로를 감동시키는 모습을 찾아낼수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

이선경 기자